

## 안데안 다국적 기업들의 중남미 금융 투자 확대

- 최근 중남미 금융시장에서 안데안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기존 중남미 금융 투자는 BBVA(스페인), Santander(스페인), Citibank(미국), HSBC(영국)과 같은 서구 대형은행들이 주도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안데안 다국적 기업들의 금융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태를 보임.
    - 다만 이 거래들의 규모는 대부분 10억불 이하 수준

표 1. 안데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투자 내용

국가	금융기관	투자 내용
콜롬비아	GNB Sudameris	영국 HSBC 은행 4개 매입
	Davivienda(대부업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있는 HSBC은행 인수 예정
	Grupo Sura (Bancolombia 모회사)	2011년 12월, 36억불 규모의 Dutch ING의 보험과 연금 사업 인수
	Grupo Aval	2010년 GE Capital로부터 BAC Creditomatic를 인수하여 중남미 6개 국가들에 있는 지사 운영권 획득
칠레	CorpBanca	2011년 12월, Santander 콜롬비아 인수 계획 발표
페루	Creditcorp	2011년 콜롬비아의 Correval 인수, 지난 4월 칠레의 IM Trust 인수 계획 발표

자료: EIU(2012.5.16), "Latin America Finance: The New Andean Multinationals."

- 이러한 추세에 배경으로 △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 안데안 3국의 주식시장 통합(Mercado Integrado de Latinoamerica: MILA), △ 역내 금융시장의 소수그룹 집중 구조를 들 수 있음.
  - 최근 서구 은행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역내 시장에서 경쟁력 잃고 있으며, 유럽계 은행들은 모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회수하고 있음.
  - 작년 안데안 3국의 주식시장 통합으로 금융 시장 규모가 확대됨.
    - 향후 MILA는 채권시장까지 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멕시코와 브라질의 BM&FBovespa역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소수 금융그룹의 금융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은 해외 인수에 매력적 요인이 됨.
    - Banco de Credito del Perú 는 국내 예금의 1/3을, Grupo Aval 역시 콜롬비아 내에서 비슷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서구 금융기관들의 중남미 금융시장 철수가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투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중남미 은행들의 역내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시은 연구원)